

다른 듯 조화롭게 어울리는 인간의 삶

한·중수묵교류전 '화和-조화와 공명' 24일까지 의재미술관

韓 전명옥·구지희·하성흡, 中 가오지리·천 진위 등 42명 참여

한국과 중국의 수묵화를 만나.

무등산 자락 의재미술관(관장 이선옥)과 중국 관산월미술관은 지난 2004년부터 양국 문화교류와 수묵화 발전을 위해 협력해 오고 있다. 특히 매년 두 미술관이 교대로 기획, 공동 주최해 온 한·중 수묵교류전은 양국에서 다양한 연령대의 작가들을 나누며 수묵화의 현재와 미래를 돌아보는 흥미로운 기획이다.

제 18회 한·중 수묵교류전은 오는 24일까지 의재미술관에서 열린다. 코로나 19로 힘든 상황에서 중국 작가들은 대체로운 소재의 대작을 출품, 양 지역의 수묵화 흐름을 살펴볼 수 있다.

이번 전시에는 양국에서 다양한 연령대의 작가 42명(한국 20명·중국 22명)이 참여했다.

전명옥 작가는 자유분방한 붓터치가 돋보이는 '어울림'을, 조광의 작가는 '바람이 머문 시간'을 선보인다.

또 하성흡 작가의 '남도의 일생', 허달중 작가의 '마음의 꽃' 등이 전시되며 유수종 작가의 '오벨리스크', 이구용 작가의 '사유공간', 이선복 작가의

'무등산 만월', 백현호 작가의 '천지인-화' 등의 작품도 만날 수 있다. 그밖에 정석훈·구지희·이동환·김천일·이명희·이민한 작가 등이 개성있는 작품을 출품했다.

중국에서는 여름날의 고즈넉한 풍경을 묘사한 천 진위 작가의 '서우초청-여름비 내리고 김', 가오지리 작가의 '팔가조' 등의 대체로운 작품이 관람객을 만난다.

전시 주제는 '화和-조화와 공명'이다. 동양미술에서 화(和)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유가의 서로 다름을 인정하면서 조화롭게 어울리는 화이부동(和而不同)은 인간의 삶을 얘기하지만 예술의 독창성으로도 해석된다. 수묵화는 흑백, 강약, 채움과 여백 등 상반되는 다름들과 깊은 정신 세계가 함께 조화를 이루며 수 천년 동안 변화하는 시대의 다양한 모습을 표현해 왔다.

참여 작가들은 코로나 이후 기대하는 시대의 소망을 담은 작품을 통해 삶 속에서 예술이, 예술 속에 삶이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화(和)의 의미를 풀어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가오지리 작 '팔가조'



피아니스트 김다솔이 지난 4년간 이어온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전곡 연주의 대장정을 마무리한다.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전곡(32곡) 연주의 대미를 장식하는 무대인 '김다솔 피아노 리사이틀'이 오는 13일 오후 7시30분 유·스퀘어문화관 금호아트홀에서 열린다.

이날 공연에서 김 씨는 예측하지 못한 비극에도 불구하고 음악가로서의 삶을 포기하지 않은 베토벤의 곡을 통해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한다.

레퍼토리는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제30번 마장조 Op.109', '피아노 소나타 제31번 내림가

장조 Op.110', '피아노 소나타 제32번 단단조 Op.111' 등이다.

김 씨는 부산에서 태어나 만 16세 나이로 일본 나고야 국제음악콩쿠르 우승, 통영 윤이상국제음악콩쿠르 준우승 및 오케스트라 특별상을 수상하며 국제 무대에 오르기 시작했다.

퀸 엘리자베스 국제음악콩쿠르 등 유수의 콩쿠르에서 입상한 그는 지난 10월 베토벤 국제피아노 콩쿠르에서 공동 2위에 올랐다. 지난해부터는 독일 라이프치히 국립음대 교수로 재직 중이다.

전석 4만원. 인터파크티켓에서 예매할 수 있다. 문의 062-360-8432. /전은재 기자 ej6621@

80년 오월 '꿈, 어떤 맑은날'

푸른연극마을, 12일 씨어터연바람

'당신의 오월은 어떤가요?'

20대 청춘들이 80년 5월을 연극으로 기록한 작품이 다시 한번 연극 무대에 오른다.

푸른연극마을은 오는 12일 오후 5시 씨어터연바람에서 '꿈, 어떤 맑은날' 공연을 연다. 이번 무대는 푸른연극마을이 2021년 오월어머니상을 수상해 받은 상금으로 마련된 특별공연으로 지난 10월 초연에 이어 두번째로 선보이는 시간이다.

작품은 1부 '흔을 부르는 소리 : 낮이 깨어나다', 2부 '그리움 : 꽃의 주인이 없는 곳에', 3부 '밤과 꿈 : 기억의 소리들', 4부 '흔을 보내는 소리 : 바람과 함께 지나가다' 등 총 4부로 구성됐다. 작품은 5·18 당시 희생된 시민들이 가졌을 평범한 삶과 소박한 꿈을 연극·춤·음악·영상·시 등 여러 예술 장르를 접목해 풀어낸 것이 특징이다.

무대에는 배우 오새희(26)·류건우(26), 무용가 김유진(29)·김은화(25)가 오른다. 무료 관람. 예약은 네이버 블로그 '씨어터 연바람' 구글 폼을 이용하면 된다. 문의 062-226-2446.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연극 '꿈, 어떤 맑은날'이 12일 씨어터연바람에서 열린다.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창' 겨울호 발간

광주 문화현장의 핫 이슈는 무엇일까?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이하 재단)이 발행하는 문화담론지 '창'이 겨울호(통권55호) 특집으로 올해의 문화현장 가장 큰 관심사를 다뤘다.

구체적으로 '문화행정과 개방형 직위'(윤만식 한국민족극협회상임고문),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그 존재의 이유'(주홍 치유예술가), '광주시립극단 사태로 본 예술인 권리 명과 암'(임인자 광주시립극단부조리문제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 간사), '드디어 문화예술지원사업, 변화다운 변화가 기대된다'(정두용 (사)청년문화허브 대표), '코로나19에 따른 문화예술계 현황 그리고 장애인'(정진삼 (사)광주장애인문화협회장)이 담겼다.

아울러 김정희 재단 편집위원장의 글 '방콕'을 통해 여행의 감성을 만날 수 있으며 '문화전진'에서는 김지연 호남대 교수가 '시민의 라이프스타일과 함께하는 광주디자인비엔날레 되길'을 주제로 디자인비엔날레에 대한 제언을 했다.



김기근 광주전남연구원 광주총괄지원연구관은 '문화전당의 총체적 역량을 재조직할 때다'를 주제로 향후 변화 방향을 제시했다.

호남지역 서원, 향교, 정자 등의 현판과 주련이야기를 읽고 있는 임준성 광주여자대 교수가 화순 환산정을 소개했고 '문화현장'에서는 우체국 통기타 동아리 '빅포스트하모니'와 대안문화공간 '산수사리'도 만날 수 있다.

강휘연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청년활동가는 책 '두 번째 지구는 없다'에 대한 리뷰를 게재했다. 재단 누리집을 통해서도 열람 가능하다. 문의 062-234-2727.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스스로의 질문에 답을 하다, 믿음을 불어 넣다

라운드 크랙 프로젝트 'Way to'

15일까지 충장로 '커피빈' 3층

지난 9월 열린 '그로서리 팝업 스토어'(Grocery farm-up store)전은 젊은이들의 특목 튀는 감성이 돋보이는 기획으로 눈길을 끌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공감하는 키워드와 당근, 가지 등 채소를 소재로 '요즘 생각'을 담아낸 유쾌한 전시였다.

붉은색의 토마토존, 보라색 가지존 등 전시 공간을 채소의 색깔로 구분하고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도 운영하는 등 재미난 전시를 구현, 젊은 관객들 사이에서 인기를 모았다.

이 전시를 기획했던 라운드 크랙의 또 다른 프로젝트 'Way to'가 오는 15까지 열린다. 이번 기획 역시 광주시 동구 충장로 1가 입구 '커피빈' 3층 빈 점포를 전시 컨셉에 맞게 재구성해 진행중이다.

전시는 20, 30대 청년들이 살아가면서 겪는 고민에 대해 스스로 질문에 답하며 삶의 도전과 자신의 선택에 대한 믿음을 불어 넣어주는 메시지를 담았다. 청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질문들을 통해 새해를 준비해 나갈 수 있는 힘을 주기 위한 기획이기도 하다.

잔잔한 음악이 흐르는 전시 공간에 들어서면 다채로운 공간 구성이 흥미롭다.

주황색 배경과 함께 살바도르 달리 그림에서 만



오는 15일까지 광주 충장로 1가 커피빈 3층에서 열리는 'way to' 전.

날 수 있는 '늑아내리는 시계' 모형과 주황색 의자가 설치된 첫번째 공간 '문득'은 혼자 있는 시간들을 만들어준 코로나 때문에 '문득' "나 지금 잘 가고 있는 거 맞을까?" 고민하는 장소다.

두 번째 '생각의 시작'은 비닐로 만들어진 이글루 속으로 들어가서 영상으로 들려오는 파도소리를 들으며 사색에 빠지는 공간이다. 'esc'라는 단어가 적힌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인간 관계에 대한 고민, 지금 할 일들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세번째 '꿈에서 발견한'은 짐은 장막 앞에서 'A'와 'B'로 들어가는 '문'을 선택하는 공간이다. 푸른빛으로 꾸며진 마지막 네번째 '도전과 시작'은 "아, 이번엔 또 뭐해볼까?" 결정하고자 자신의 선택에 힘을 실는 장소다.

전시장에서는 청년작가들과 협업한 키홀더, 에어팟 케이스, 엽서 등도 판매한다. 운영 시간 오후 3시-밤 9시(입장마감 8시)까지다. 무료 관람.

/글·사진·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순창 출신 양정숙 동화작가 '까망이' 펴내

순창 출신 양정숙 동화작가가 작품집 '까망이'(가문비 어린이)를 펴냈다.

책에는 모두 다섯 편의 작품이 수록돼 있다. 생명과 자연, 마음 등 자칫 일상에서 놓치기 쉬운 중요한 가치를 생각하게 하는 소재들을 모티브로 삼았다.

생명을 아끼는 마음의 소중함을 담은 '까망이', 사람과 자연의 더불어 사는 행복을 강조하는 '재돌이와 진돌이', 세상에 좋은 사람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그날의 꽃' 등이 그것이다.

또한 동물에게도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똥 좀 싸면 어때'와 순수한 마음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눈새기꽃'도 수록돼 있다.

저자는 "다섯 편의 이야기 중 세 편만 소개했는데 다른 이야기도 갖가지 사연을 안고 태어났다"며 "글을 쓰는 동안 직접 또는 간접으로 겪은 이야기들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 가슴을 따스하게 데워



주었다"고 말했다.

한편 양정숙 작가는 조선대에서 문예창작을, 광주교육대학교에서 아동문학을 전공했다. 2016년 지역 일간지 신춘문예에 동화로 등단했으며 지금까지 동화집 '구리구리 통개구리', '감나무 위 꿀단지'와 그림동화 '섬진강 뚜꺼비다리', '새롬 음악회' 등을 펴냈다. 천장문학상, 민들레문학상, 광주전남아동문학상 등을 수상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고객에게는 신뢰와 만족”

1982 - 2022

국제보청기 40주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제보청기

-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2) 227-9940

062) 227-9970

02) 765-9940

061) 752-9940